

“전북교육, 산업 대전환 인재 전략 재편”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인재 생애 경로 구축안 제시... 독서 통한 기초 사고력 강화·특성화고 재구조화 등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 교육의 방향을 '수도권 대학입시 중심'에서 '산업 대전환을 준비하는 인재 전략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생명·바이오, 수소·모빌리티, AI·데이터, 체험형 문화·콘텐츠 산업을 축으로 한 '전북형 인재 생애 경로'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북 교육이 수도권 대학입시 경쟁에만 매달려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전라산업과 교육이 연결될 때 전북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독서와 AI 교육을 통한 기초 사고력 강화에서 출발해 전라산업 연계 진로·진학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취업·후 학습·창업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3단계 생애 경로 설계를 핵심으로 한다. 이 예비후보는 "AI 시대 교육의 출발점은 독서와 사고력"이라며 "교육 정책을 실제 삶의 경로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공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라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재구조화 방안도 제시됐다. 수소·모빌리티 기술, 로봇 유지보수, 데이터 운영·AI 활용, 스마트팜·푸드테크, 문화콘텐츠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인재 생애 경로'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츠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전라산업 특화 과정을 확대해 산업 현장과 직결되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도제교육과 현장실습도 NCS 기반 교육과정과 결합해 '전북형 전라산업 연계 특성화고'로 전면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도 전라산업 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업계고, 대학, 지역기업, 혁신도

시·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일·학습 창업 경력 사다리' 구축 방안도 내놴다. 고졸 취업 이후 전문학사·학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후 학습 경로를 확대하고, 대학·기업 연계 창업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통해 전라산업 기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농생명과학고등학교의 전북혁신도시 이전도 제안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국가농생명 기관과 연계해 실증 실습과

공동 프로젝트, 장기 인턴십을 체계화하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농업 4.0 시대에 농업은 AI·로봇·빅데이터가 결합된 첨단 융합 산업"이라며 "단순한 학교 이전이 아니라 전북 농생명 산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재 전략의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 문제는 관계 기관과 학부모 재학생 졸업생 등과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교육청, 전북도청, 새만금개발청,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전북 전라산업 인재·정주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산업·정주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전라산업 중심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학생 진로 지원 강화 등 '전북 청년정주 패키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산업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부지를 유지해도 인재는 계속 빠져나간다"며 "전북이 사람으로 채워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 대응 교육을 넘어 산업 대전환 인재 전략으로 전북 교육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고교생 스스로가 기획·운영 자기주도적 탐구 문화 조성

전북교육청, 올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지원 추진
총 170개 팀 선정 동아리당 100만원 활동비 지원
과학탐구·과제 연구·지역과학활동 등 3개 영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교사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동아리 구성부터 활동 주제 선정, 예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율적 운영 역량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겠다는 목표다.

올해는 총 170개 팀을 선정해 동아리당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과학탐구 △과제 연구(R&E) △지역과학활동 등 3개 영역이다.

과학탐구 분야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교과와 연계한 프로젝트 및 실험 활동이 중심이다. 과제 연구 분야는 학생들이 직접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장기 프로젝트형 연구 활동으로 운영된다. 지역과학활동은 지역사회 문제나 학교 환경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활동, 지역 자원 활용 과학 활동, 과학 봉사 활동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능동형 과학실 ON' 플랫폼과 빅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을 권장할 디지털 기반 탐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탐구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패 극복 사례까지 기록하는 '과제 중심 탐구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오는 12월 열리는 '융합교육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학생 10~20명 내외로 구성된 과학 동아리이며, 행정 지원과 안전 지도 등을 위해 반드시 소속 학교 지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20일 오후 6시까지 대표 학생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 1일 이후 발표된다. /오상근 기자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치졸한 네거티브 중단하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제기된 현직 교사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패 기제는 간담회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 일뿐"이라며 "해당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논란은 한 현직 교사 A씨가 천 예비후보와 전문상담교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명패에 캠프 소속으로 표기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천 예비후보는 "A교사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전북미래교육연구소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담회는 전문상담교사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으며, 명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동석자를 선거 보좌진으로 추정해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교사는 간담회에서 별도의 발언 없이 배석해 경청만 했고 명패 기재 내용도 사후에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오상근 기자

우석대 핸드볼 최현호 감독

남자 대학선발팀 사령탑 올라



최 감독은 선수 시절 한국 남자핸드볼의 황금세대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1998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안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 대회에 출전하며 활약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개막 행사가 열린 5일, 양오봉 총장과 총학생회 학생들이 대학 후생관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취업 연계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2026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운영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진학·취업을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5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AI·디지털 기반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장애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학교에서 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와 특수학급 중심의 직업교

육 지역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초·중·고·전공과로 이어지는 학교급간 연계 진로교육을 강화해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활동도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전북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력해 직업체험관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학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생활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고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특수학교 전공과 및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해 졸업 이후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진학 로드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과 희망드림 직업실습(학교 내 직업실습)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진로직업 원스톱 협의체를 운영해 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직업실기 역량 강화로 취업 경쟁력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호원대,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3일 오전 11시부터 4일까지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과 '희망다짐돌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과정별 신입생은 신입학 1,044명, 편입학 163명, 위탁 신입학 225명, 위탁 편입학 274명으로 총 1,706명이다.

입학식은 강희성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황보재현 학생(실용음악학부)과 이은서 학생(공영미디어학부)이 신입생 대표로 나서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고 대학의 명예를

빛낼 것'을 선사했다. 이어 신입생이 전원이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강희성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당부하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입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입학식 이후에는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2026학년도 희망다짐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동기유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 및 학부(과) 차원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들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뒤 4일 오후 4시부터 문화체육관에서 신입생들을 축하하는 문화예술제가 열렸다. /권산=김만호 기자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재도전

AI+이차전지 분야... 도교육청, 신규 지정 동시 교육부에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리공업고등학교를 'AI+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리공업고와 협력해 마이스터고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리공업고를 이차전지 전문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전라산업과 직업교육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리공업고는 2024년에도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과 인프라 계획을 개선한 뒤 이번 재도전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협업을 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육성 계획과 연계한 '정부부처주도형'으로 추진된

다. 국가중점산업과 직업계고 지역 산업체를 연결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신산업 기술 인재 양성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정 동시에는 이차전지 분야에 시를 접목한 '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담겼다. 전북교육청은 배터리공정과 배터리시스템과 등 2개 학과, 6개 학급 규모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공정 이해와 시스템 설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비해 2020년까지 총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실습 설비 확충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 요건인 기숙사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2028년 3월 개교 시 전교생 수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교육부 공모는 3월부터 6월까지 서면 및 현장 심의가 진행되며, 9월 중 지정 등의 여부가 통보될 예정이다. 최종 지정될 경우 이리공업고는 2028년 3월 마이스터고 개교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오상근 기자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 지원

전북교육청,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내달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오는 4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평가는 학년 초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과별 성취 수준 등 인지기적 영역뿐 아니라 문제해결력, 정보처리, 의사소통 능력 등 비인지기적 특성까지 함께 평가해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평가는 컴퓨터·노트북·태블릿 등을 활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은 발달 수준과 정보기기 활용 경험의 차이를 고려해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 3학년과 중 1학년은 각각 기초 교과 학습이 본격화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임을 감안해 전체 학생의 응시를 권고하고 있다.

평가 범위는 학년별로 다르다. 초 3학년은 초 1·2학년 과정의 전반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평가한다. 초 4학년에서 고 1학년까지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직전 학년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이 가운데 중 1학년은 진로·적성 진단을 포함하며, 그 외 학년은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평가한다. 고 2학년은 국어·수학·영어를 대상으로 고 1학년 전 범위를 평가하며, 사회·정서적 역량도 포함된다.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과 과 영역·역량별 성취 등 결과는 4월 말 일괄 제공된다.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기초학력평가포털과 연계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해당 학년에서 기대하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성취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교수·학습에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